

# 올해산 노지감귤 52만8000t 생산 예상

### 감귤관측조사위 심의 결과... 지난해보다 6만400t 증가 당도 낮고 산함량 높아... "향후 기상 따라 달라질 수도"

올해 노지감귤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돼 고품질 생산을 위한 감귤관측조사위 심의 결과... 지난해보다 6만400t 증가 당도 낮고 산함량 높아... "향후 기상 따라 달라질 수도"

제주특별자치도 감귤관측조사위원회(위원장 한상현)와 농업기술원(원장 정대천)은 지난 6일 올해 노지감귤 생산 예상량이 52만8000t 내외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생산량 46만7600t과 비교해 6만400t 많은 수준이다.

노지감귤 나무 당 평균 열매수는

938개로 조사됐다. 최근 5개년 평균 837개 대비 101개(12.1%)가 많고, 전년과 비교해서는 122개(15%) 많은 양이다.

열매의 크기는 42.4mm로 전년보다 2.2mm, 평년보다 2.5mm 크다. 지역별로는 제주지역이 전년대비 3.2mm, 평년대비 3.7mm 컸고, 서귀포는 전년대비 각각 0.7mm, 1.1mm 큰 것으로 조사됐다.

당도는 6.8브릭스로 전년보다 1.4

브릭스, 평년보다 0.5브릭스 낮았으나 산함량은 3.28%로 전년대비 0.11%, 평년대비 0.25% 높았다. 현재는 새콤한 맛이 더 강하지만, 오는 9~10월 기상 여건에 따라 당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농기원은 판단했다.

농기원은 비상품 감귤 따내기 등 고품질 감귤생산에 위한 농가 현장 기술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농기원 관계자는 "노지감귤 재배면적을 위해 상처가 있거나 기준 이상으로 크거나 작은 비상품 감귤을 따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지역별, 과원별, 나무별로 세심한 관리를 해 달

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기원은 지난달 14일부터 23일까지 도내 458곳 916그루를 대상으로 관측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열매 수, 크기, 재식거리 등이며, 지난 5일 감귤관측조사위원회에서 결과를 심의했다.

생산예상량은 적용시점 11월 20일·노지감귤 재배면적 1만4898ha를 기준으로 분석했다. 향후 기상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감귤관측조사위는 오는 11월에 품질, 수량 등 3차 관측조사를 실시해 최종 생산예상량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 태풍 피해로 추석 앞뒤 과일값 '부담'

### 정부 "낙과 피해면적 상당" 사과·배 등 가격상승 불가피

추석을 며칠 앞둔 지난 7일 강풍을 동반한 제13호 태풍 '링링'이 전국을 강타하며 출하를 앞둔 과수재배 농가들이 큰 피해를 봤다. 당초 제주수출품인 사과와 배 등의 출하량이 많아 가격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 태풍 피해로 과일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태풍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과수원은 이날 기준 1157ha에 이른다. 특히 배의 주산지인 나주와 영암 등 전남지역의 낙과 피해 면적이 상당하다. 이에 따른 배와 사과 등의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추석 성수기 출하량 전망'을 통해

사과와 배의 출하량은 6%, 5% 각각 증가하고 단감은 1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태풍 내습에 따른 낙과 피해 및 상처와 발생으로 품질 저하를 우려했다.

추석 성수기 사과(홍로)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대비 낮지만 평년대비로는 높은 5kg 상품 기준 2만9000~3만2000원 수준이다. 배(신고) 역시 출하량 증가로 사과와 유사하고 가격은 7.5kg 기준 2만7000~3만원대로 예상된다. 단감(서촌조생)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대비 높은 10kg 기준 4만6000~4만9000원대를 보일 전망이다.

하우스감귤의 평균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9월 기준 전년대비 4580원 보다 낮은 kg당 4000~4300원으로 전망된다.

포도는 출하량과 함께 가격도 동반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백금탁기자



중 항저우에 제주상품 전용판매장 2호점 개장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에 제주상품 전용 전시 판매장 2호점 개장행사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2호점에서는 화장품, 식품 등 50여개의 제품이 판매되는 한편 판매장 내에 중국 온라인 유명인사인 왕홍 스튜디오 시설을 갖춰 제주상품에 대한 온오프라인 마케팅도 실시한다. 사진=제주도 제공

## 유류세 인하 종료 첫 주... 휘발유값 1600원대

### 제주, 전국서 두번째로 높아

정부의 유류세 인하가 종료되면서 9월 첫 주의 제주지역 휘발유 가격이 8당(이하 생략) 1600원대를 돌파했다. 국제유가와 함께 정유사별 공급가격은 모두 하락하며 당초 유류세 적용 부분인 휘발유 58원, 경유 41원보다 하락에 따른 소비자의 지출 부담은 다소 완화됐다.

8일 오픈넷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제주지역 휘발유 가격은 1614원으로 지난 8월 말 1587원에서 27원(전국평균 23.0원), 경유는 1419원에서 1459원으로 30원(전국평균 17.8원) 각각 올랐다. 이는 전국평균 휘발유 1517원과 경유 1370원에 견줘 각각 97원과 89원이 높다.

9월 1주의 전국 휘발유 평균가격은

1506원으로 제주의 1594원보다 88원 저렴하다. 서울이 1623원으로 가장 높고 제주는 2위다. 대구가 1488원으로 서울보다 135.8원이 낮다.

정유사별 공급가격은 적게는 10원에서 많게는 66원 내렸다. 국제유가는 2~23원 가량 하락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 로또복권 <제875회>

당첨번호	19. 22. 30. 34. 39. 44
2 등 보너스숫자	36
1 등	6개 숫자 일치
2 등	5개 숫자+보너스숫자 일치
3 등	5개 숫자 일치
4 등	4개 숫자 일치
5 등	3개 숫자 일치

## 창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

금주(9월 9일~15일)의 창립기념일		<창립일순>	
회사명	대표	창립일	
제주은행 신제주금융센터	오경화	1980년 9월 9일	
영주유리창호SM남선알미늄대리점	장일주	1979년 9월 10일	
제주Y신협	고정인	1980년 9월 11일	
NH농협은행 서문지점	김병산	1979년 9월 12일	

9월 16일부터 22일까지 창립일을 맞는 회사는 연례주기기 바랍니다. (전화 750-2271)

## "고객가치 높이는 '따뜻한 금융' 실현"

▶ 제주은행 신제주지점=9일 창립 39주년을 맞는 제주은행 신제주금융센터(센터장 겸 3지역본부장 오경화·사진)는 신제주로터리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청 등 관공서 및 기업체 등과 밀접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실천과 지역 내 불우이웃돕기, 장학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은행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오경화 센터장은 "최상의 서비스를 통해 고객 만족을 이끌어가는 지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746-2196.



## "30년 넘는 기술력으로 꾸준히 성장"

▶ 영주유리창호SM남선알미늄대리점=10일 창립 40주년을 맞는 영주유리창호SM남선알미늄대리점(대표 장일주·사진)은 유리 가공·시공업과 금속구조업을 취급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특히 2004년 서귀포시 최초로 자동 면취 가공기계를 도입해 유리 가공을 비록 시공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를 도맡아 수행하고 있다.

장일주 대표는 "클린사업장으로 재인정되는 등 30년 넘게 쌓아온 기술력과 장인정신으로 고객 만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762-6670.



## "조합원에 다가가는 금융서비스 제공"

▶ 제주Y신협=11일 창립 39주년을 맞는 제주Y신협(이사장 고정인·사진)은 조합원 1만500여명, 자산 160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 지역서민 금융기관이다. 2017년에는 금융권 소외지역인 도두, 이호동 지역에 도리지점(제주시 도두1동)을 개점하면서 제2창원의 각으로 신제주지점(제주시 연동)과 함께 새로운 환경속에 조합원들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정인 이사장은 "조합원을 위한 경조사 지원, 국내의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주YCU봉사단을 필두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면서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 755-1501.



## "지역과 상생하는 대표 금융기관으로"

▶ NH농협은행 서문지점=12일 개점 40주년을 맞는 NH농협은행 서문지점(지점장 김병산·사진)은 용담동 유일의 은행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며 나아가는 대표 금융기관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과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또 친절한 서비스와 최고의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고객감동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김병산 지점장은 "전 직원이 합심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소통과 배려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729-6637.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공인중개사 제주컨설팅** ☎ 726-4585 / 010-8660-1263

등록번호 : 가 4402-408 대표/공인중개사 박원희

**와흘리 계획관리지역 창고 대지 2,100㎡ 창고 2동 640㎡**

- 구좌읍 김녕리 4,300㎡(자연녹지, 맹지)
- 거로마을 주거지역 1600㎡
- 남원 하례리 2300㎡ 자연녹지(과)
- 대정읍 무릉리 전 12,000㎡(계획관리지역)
- 법환동 2400㎡, 5000㎡ 해안도로 인근 (건축허가 특)
- 서귀포 강정동 2100㎡ 자연녹지(과)

**화북2동(공업단지맞은편) 대 2,500㎡ 건 400㎡ 화북2동(공업단지맞은편) 대 1600㎡ 건 160㎡**

- 서귀포 법환동 오피스텔 38.19㎡ 분양가 이하 매매
- 삼도1동 2층 주택 대 165㎡, 건 150㎡
- 매월 유수암리 2,500㎡(계획관리, 임, 2차선점)
- 조천읍 북촌리 전 3,000㎡(자연녹지, 맹지)
- 조천 신촌리 자연녹지 1,600㎡(대도로점)
- 환경면 저지리 전(11,000㎡) 계획관리지역

**동부공인중개사** ☎ 010-2800-4595 / 064-747-5115

신제주로터리 현일빌딩 3F 대표/공인중개사 부문 박

**※김녕해안도로점 2474㎡ 15억원**

- 해안동마을 맹지 대674㎡/매가150㎡ 5억
- 해안동 생관임야(목장) 맹지28,842㎡ 6억
- 상명리 조림식주택60㎡/대430㎡ 1.5억
- 수상동 저수지인근 카페음료관양호 620㎡ 3.1억
- 판포 바다경관 국 자연녹지 3028㎡ 6.4억원

**※하례5.16도로동축과수원 8856㎡ 11억원**

- 아라동기차촌내 1090㎡ 9.24억
- 봉성 시멘트도점 임야 842㎡ 6000만원
- 고성외고인근2차선점 대지조성 481㎡ 6.5억원
- 유수암 2차선 번 주택확공 토지 519㎡ 2.5억
- 조천해안도로인근 대지 502㎡ 3.35억

**※중문고인근 자연녹지 638㎡ 3.3억**

- 선출검은오목 북측 주택용지 1002㎡ 2.2억
- 신촌 2층주거지역 대 157㎡ 1.7억
- 우도하고수동해수욕장인근 10,323㎡ 12.5억원
- 월정리 해수욕장 택지조성지 393㎡ 6.5억
- 오라정실 마을내 587㎡ 7.65억원

# 벌초기계판매

◆ 종류 : 전착식, 배부식, 조립식

남성로터리 ↑  
신제주 ← 종합경기장 정문 앞 한성기계 →  
CU ● 터미널  
주경기장 정문 ↓ 한성기계

**한성기계**  
제주지역 ☎ 753-6653  
FAX 753-6654

에초기/Brush Cutter 잔디깎이/Lawn Mower 체인톱/Chain Saw 전정기/Hedge Trimer 송풍기(낙엽청소)/Blower